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9. 6. 20.(월) 10:00

5분 자유발언



논산시의회 의원 서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스콘공장 신설」에 대한 제안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연무읍, 강정읍, 채운면 지역구의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명선 시장님,

관제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결산 심사와 추정 예산을 함께 하는 정례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의 100년 대제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논산시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하여 몇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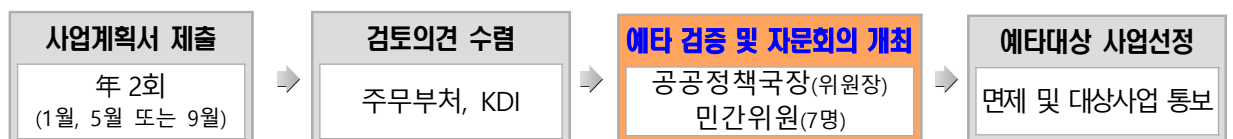
첫째. 경제적 타당성 검증 통과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LH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증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임
 - 충남국방산단은 사업비 2,000억원(국비 1,000억원)
사업임

- (검증절차) 충남국방산단에 대해 LH에서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하면 한국개발
연구원(KDI)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기재부에 통보



-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인 연무읍 반정 20km
이내 지역은 산업집적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서, KDI가 시행하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에서 매우 낮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것이 LH,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실성 없는 조성 원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입니다.

□ 충남국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LH는 예정부지인 연무읍 일원 31만평의 조성원가를 3.3㎡(평당) 120만원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부지의 시세나 매입 감정가격은 3.3㎡당 20만원 전,후 수준인데 비해 무려 6배가 넘는 3.3㎡당 120만원은 조성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토지 원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실례로 2012년에 조성된 동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가 3.3㎡당 40만원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더라도 3.3㎡당 120만원을 주고 입주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LH가 주장하는 조성원가에 대해 논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분양가가 3.3㎡당 40만원 대인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데, 3.3㎡당 120만원에 분양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또한 국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논산시 국방협력과가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신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이제 논산시는 전문 TF팀을 꾸려 국방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관련업무를 충청남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무읍의 아스콘 공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스콘 공장의 사업 허가를 승인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대 원칙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연무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인근 채운면까지 영향권에 속해 있고 오염저감장치를 잘 해도 주거밀집 지역에 아스콘 공장이 신설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타 도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해당 지역의 아스콘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염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논산시도 이 점에 대해 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에 아스콘 공장과 암환자 발생 빈도에 따른 역학조사로 아스콘 제조공정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라돈 검출이 확인된 바 있기에,

향후 비슷한 환경 문제로 대두될만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문제에 논산시도 신중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앞으로 논산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 환경유
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
저하게 관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논산시의회 의원 서원

제 목 :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스콘공장신설』에 대한 제안

☐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적타당성 검증 통과 대책
- LH의 국가산단 3.3㎡(평)당 120만원 분양가에 대한 방안
- 국방산업관련 전문 TF팀을 신설

☐ 연무읍 아스콘공장 신설

- 아스콘공장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철저관리
- 1급발암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 신중히 고민필요